

일하며 사는 즐거움



金成植 (경희대 명예교수)

사람은 누구나 즐겁게 살기를 원한다. 즐겁게 살기 위해 오늘 의 사람들은 여러 가지 오락 시설을 갖추고 있다. 음악회, 영화관, 극장 기타 사람이 즐길 수 있는 많은 집회와 시설이 있다.

외향적 즐거움 보다 내향적으로 인생의 즐거움을 얻으려는 사람도 있다. 독서와 명상과 또 여행에서 오는 고독으로 자기 혼자만의 즐거움을 찾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외향적이든 내향적이든 모두다 일시적으로 맛보는 즐거움이요, 항구적은 아니다. 또 많은 변화에서 오는 즐거움은 젊었을 적에는 몰라도 중년 이상되면 도리어 피로하다.

일생동안의 즐거움이란 무엇인가. 적어도 자기가 활동 할 수 있는 동안의 즐거움 말이다.

속담에 꿩 먹고 알 먹고 라는 말이 있다.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직업에서 돈도 벌고 즐거움도 느낄 수는 없을까. 직장에서 돈 벌고 만 데서 돈 쓰는 즐거움이란 (대부분의 사람과 같이) 과연 생산적 즐거움이 될 수 있을까.

사람의 원천적이고 근본적인 즐거움이란 자기의 직업에서 얻어야 될 줄로 안다. 가령 여기에 한 상인이 있다고 하자. 그는 이곳 저곳으로 돌아 다니면서 좋고 값싼 물건을 사서 팔아 이득을 본다고 하자. 돈을 많이 번다고 하자. 집도 근사하게 짓고 생활의 편리함도 만끽하고 있다고 하자. 그만 했으면 남 부럽지 않게 산다고 하겠다.

그런데 여기서 그 상인의 즐거움은 무엇일까. 단지 돈 모으는 일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데서만 인생의 즐거움을 얻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런 사람이 늙어서도 즐거움의 여운을 맛볼 수 있을까.

만일 상인이 좀 높은 차원에서 인생을 바라다 본다면 자기의 상행위가 물질문명의 교류만이 아니고 거기에 뒤따라 정신문명의 교류도 성취되고 그것이 인류문화의 교류와 창조에 이바지하는 것이라면 상행위가 얼마나 고상한 인생의 즐거움이 되는가를 알게 될 것이다. 그 위에 남을 위해,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위해 돈을 쓴다고 하면 인인애(隣人愛)가 얼마나 보람있고 즐거움이 되는 것인가도 알게 될 것이다.

한 회사원의 예를 들어 보자.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직장에 만족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 원래 생활방법으로만 생각하는 직장은 지루하고 즐거움을 느끼지 못한다.

그러므로 우선 직장은 자기의 적성에 맞는가 아닌가를 점검하고 맞는다고 하면 거기서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앞에서 말했지만 봉급만 받는다는 것은 창의성의 말살이요 지루하다. 그러나 자기 직장에 충실하고 의의를 발견하며 자기 하는 일이 회사를 번창하게 하고 그 회사는 한국 경제계에 두각을 나타내서 뜻있는 회사가 된다면 거기서 모든 직장인은 생의 즐거움을 발견해야 된다.

직장이 즐거우면 창의성은 저절로 발휘하게 되고 자기 창의성에서 인생의 즐거움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자기 회사의 존재이유에 동참(同參)함으로써 즐거움을 찾아야 된다. ■